

아버지의 위기와 기회

The Crisis and Opportunity of Fatherhood

여호수아 24:15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6월 19일 아버지날 설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의 위기

오늘은 아버지날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축하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날입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날에 좀 엉뚱하게 “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위기입니다. 사실 요즘 위기가 아닌 게 없지요. 몇 년 불황으로 경제도 위기고, 동성연애니 뭐니 해서 사회도 위기고, 진리가 뭔지 알쏭달쏭해 학문도 위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말을 쓸 때는 주로 아버지한테 씁니다. 전에는 안 그랬지요. 주로 사오십 대 주부들에게 쓰던 말인데 지금은 아버지한테만 씁니다.

수천 년 동안 잘 있다가 왜 하필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 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는 아버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요. 어머니들은 그럼 신이 나십니까? 아버지의 위기가 어머니에게는 기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위기라고 해서 어머니나 자녀한테 기회가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위기는 온 가정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날은 꼭 필요합니다. 위로나 축하하는 나중에 하고 우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보고 아버지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위기를 맞이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있으니 머리로야 알 수 있겠지만 삶 속에서 “야, 이런 분이 아버지구나!” 하고 느끼기는 어렵게 겁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아버지날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정이 사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를 이겨낸 참 아버지를 보여 줌으로써 전도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너진 전통

아버지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 남자위주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남자라는 것, 특히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벼슬이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가 남자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노래만 불렀지요. 무슨 노래입니까? “당신의 그림자로 행복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 아버지가 잘 되도록 돕고 그래서 잘 되면 곁에서 또는 뒤에서 혜택을 조금 맛보는 게 다였습니다. 권력을 다투는 정치판에서도, 돈을 쥐고 흔드는 경제계에서도, 그리고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이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어른이지요. 아무리 못난 남자라도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를 종처럼 부릴 수 있었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그렇게 남자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 여자의 숙명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연속극에서도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말을 높이고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반말을 하는 게 우리 문화였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인격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그저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에게 복종했습니다. 물론 돈도 벌어들여 나쁜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외면한 아버지조차도 특권은 얼마든지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소리치는 사람, 결핍하면 성내는 사람, 온 식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사람 (“아버지가 아시면 큰 일 나!” 어머니와 자녀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지요), 또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자식만 꾸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인간세상은 정말 남자의 낙원이요 아버지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개벽을 해 버렸습니다. 노예생활을 하던 흑인이 자유를 되찾고,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누리게 되고, 수천 년 동안 눌러 살던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게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깎아 평평하게 하신 일이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산을 깎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이게 아버지다, 이게 아버지다운 거다 하고 생각하던 게 다 깎여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존귀, 영광, 권세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남자가 독점하던 걸 이제는 여자도 다 합니다.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회장님도 되고 목사도 하고 다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림자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물 떠 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입을 다문 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확장하고 외출을 해도 “여보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와 기회

이게 위겁니까?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에 누리던 걸 잃은 이진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다 잃은 사람에게 함부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잘 잃었습니다. 다 잃은 그거,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왜요? 전에 내가 누리던 건 다른 사람에게는 억압이고 폭력이었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으니 옳지 않습니다. 백인이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흑인을 노예로 부렸으니 큰 죄악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누리려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힘으로 억누른 것도 잘못입니다. 남녀불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특권이니 다 잃은 건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잘 됐는데 그럼 왜 위기라 합니까? 잃어서 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잃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장기에서 차 떼고 포 떼면 졸이라도 남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졸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부당하게 누리던 걸 잃었으니 제대로 된 건 남아야 되는데 엉터리는 다 잃었으면서 진짜는 아직 못 갖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한테 성내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대접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 벌여오는 기계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침에 제 아이들한테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시킨 모양인데 셋 다 사내아이답게 참 간단하게도 썼습니다. 그렇게 짧게 써버릇하면 나중에 시인이 되지요. 막내는 “엄마가 없는 동안 챙겨줘 고맙다”고 썼습니다. 아빠는 엄마 대용입니까? 둘째는 자기를 세상에 나오게 해 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생각나더군요. 모세를 기르고 살리는 일은 모세 어머니가 다 하고 모세 아버지는 그저 그 사람에게 장가든 게 다라고 쓴 구절 말입니다. 큰 애는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 영어로 “그레이트 잡”을 해 줘 고맙다 했는데 그 잡이 뭔지는 안 썼습니다. 사실 알고 싶은 게 아빠가 한 그 일이 뭔가 하는 건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답을 몰라 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니 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알고 보면 기회가 됩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 모습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전에는 가짜를 진짜로 속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함만 지르면 되는 줄 착각했고 책임을 안 져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짜를 그리워하며 술잔만 기울인다면 진짜 위기가 되겠지만 가짜를 과감히 내버리고 진짜를 찾아 나선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버지날이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성경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늘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수석을 하려면 예수복습을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세계경제의 위기나 현대 학문의 위기라면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대 남성의 위기에 관한 어떤 좌담에서 목사 한 분이 말하기를, “여자들은 성경의 여성을 모범으로 삼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월간목회, 1997년 4월).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 아버지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성경은 몇 남성들이 껍데기 권위를 휘두르던 시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위주의의 허물을 벗고 참 모습을 갖춘 훌륭한 아버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버지로서도 훌륭한 아버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인격자가 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성품이 못된 사람이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형편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인격자 아버지를 둔 자식이 빛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좋은 아들, 밖에서는 좋은 회사원, 좋은 사업가가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니 좋은 인격자가 아니라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변수가 워낙 많으니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럼 그런 아버지를 둔 건 복이겠지요? 사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식 노릇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좋기로야 아브라함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 명령하셨는데 두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묶더니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때가 사춘기였을 거라 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댔다 하셔서 죽지는 않았지만 충격이야 말로 설명이 안 되겠지요. 이삭은 평생을 조용히 살다 갔는데 사춘기 때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고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이삭 입장에서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둔 게 복입니까 아십니까? 아버지 믿음 때문에 180년이나 되는 긴 생애를 평생 기한 번 못 펴고 살았다면 참 안 된 인생이지요.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잘 만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복을 받았습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아버지 잘 둔 덕이지요? 잠시 있다 갈 이 세상에서 영원을 얻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복일 터인데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 이상 무슨 복을 더 바라겠습니까?

욥과 고넬료

욥의 자식들도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한 사람이었습니다. 칠남 삼녀 십남매를 기르면서 믿음의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열 명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죽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하도 좋아 마귀가 시험한다고 자식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제대로 못 살고 죽었으니 억울하겠지요. 까닭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어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라서 하고 싶은 것 실컷 해 보고 죽었으니 여한이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물이 많이 들면 그런 생각도 들겠지요. 욥의 자녀들은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에 영생의 복도 받았습시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이 말년에 재산의 복은 두 배로 받았지만 자식은 처음하고 똑같이 십남매를 얻었습니다. 이미 죽은 열 명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두 배로 받은 것처럼 자식도 두 배로 받은 거지요. 욥의 자녀들은 좋은 아버지를 두어 정말 복을 받았습시다.

욥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평평거리며 살았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갔겠지요. 그걸 알았기에 욥은 자신이 먼저 바른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도록 훈련시켰습시다. 그러니 주 안에서 바로 살면 죽는 것도 복입니다. 아버지를 잘 둔 덕이지요.

좋은 아버지를 둔 복된 자녀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욥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고넬료가 있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행 10:2).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혼자만 가진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전하고 온 가족이 믿고 성령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좋은 아버지 덕분에 자녀들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넬료 자식이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았다 하면 별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만아들은 장관이 되고 둘째는 부장판사가 되고 딸은 종합병원 원장 집으로 시집갔다 그래야 정말 복 받았구나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구약도 신약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자다 보니 우리가 많이 헛갈립니다.)

본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욥도 고넬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말고도 아버지로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셋 다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교육 방법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매를 썼는지 아니면 말로만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언제 사람입니까? 권위주

의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권위만으로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던 시대에 오히려 희생과 모범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한테는 위기라는 게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녀를 아무리 옥박질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버지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강요할 수 있던 시대에도 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내가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좀 낼지 몰라도 그게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도 진실하게, 삶도 참되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내 자녀들이 아버지 잘 둔 덕을 볼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강조하면서 “만약 여호와를 섬기기 싫다면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이든 가나안 사람의 우상이든 마음대로 골라서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만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미래형이지요? 이 말을 한 다음 여호수아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섬길 사람은 남은 자식들입니다. 이 말 속에 여호수아가 참 좋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라면 강압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할 수 있겠지만 죽은 뒤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자녀들이 여호와만 섬길 거라면 그 가정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바른 신앙을 이어갈 든든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바탕이 뭐였겠습니까? 교육 방법도 좋은 걸 썼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평생을 여호와만 믿음으로 섬겨 온 여호수아 자신의 모범이 가장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는 책임입니다. 가정을 꾸려갈 책임입니다. 자녀를 바로 양육할 책임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어머니와 함께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온 가정이 무너집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바로 배우고 바로 자라도록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인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인이 될 때 좋은 아버지도 되고 좋은 남편도 되고 좋은 직장인도 되고 좋은 친구도 됩니다.

지난 세대까지 아버지들이 누리던 거짓 권세는 이제 잊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대신 참 권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참 권위가 있습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는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옛 아버지보다 참 아버지의 모습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친구가 되었으니 큰소리도 못 치지요. 강요해도 안 듣지만 강요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가짜가 사라진 거니까 잘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배워야 할 아버지의 모습이요,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몸부림치며 실천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 아버지도 그렇지만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이고 모범이고 희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어 망하게 되었을 때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일하셨고 이천 년 전에는 드디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

지난 날 아버지들이 누리던 거짓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권위주의가 사라진 거지요. 하지만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권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지요. 권위주의가 사라진 다음 아버지의 진짜 권위가 드러납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스스로 본이 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들이 알아주고 자녀들이 인정해주는 진짜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얻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지요.

그런 아버지는 가정의 복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도 복입니다. 돈 생기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올라간다고 복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원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 곧 믿음의 아버지 덕분에 영생의 복을 얻는 게 참 복입니다.

책임과 모범과 희생, 이걸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람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라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분의 사랑을 배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그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위기가 됩니다. 그 위기를 잘 이용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배운다면 위기는 한 순간 기회로 바뀝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버지날은 사랑의 날입니다.

혹 좋은 아버지를 두셨다 싶은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덕에 주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삶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지요. 혹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나 인생이 꼬였다 싶습니까? 남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 좋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 왕에게서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요나단이 났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아 벌을 면했습니다. 같이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은 자녀들도 다 동조해 모두 생매장의 벌을 받았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안 좋은 아버지를 극복하고 살아남아 그 후손 가운데 사무엘이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안 좋아 힘들었다면 이제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배워 그런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불행은 나 대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에게 아버지 잘 둔 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날에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워 좋은 아버지가 된 성경의 여러 아버지들에게서도 잘 배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늘 아버지날도 참 뜻 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